

# 12월 30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3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뉴욕, 다우케미칼·유가에 발목</p> <p>[다우: 8,483.93pt (-0.37%)]</p>	<p>뉴욕증시가 이틀간의 반등을 접고 약세로 돌아섰음. 쿠웨이트가 다우케미칼과 추진하던 175억달러 규모의 합작법인 계획을 철회했다는 악재로 다우케미칼이 폭락하며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이틀째 급등하면서 에너지주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속등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심리를 압박할 것이란 우려감도 뉴욕증시에 부담을 줬음.</p>
<p>다우케미칼, 쿠웨이트와의 합작무산으로 폭락</p>	<p>부진한 시장상황과 금융위기 등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쿠웨이트는 지난 일요일에 다우케미칼과 추진하던 174억달러의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포기한다고 밝혔음. 다우케미칼은 쿠웨이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국내 경쟁사인 롬앤하스(Rohm &amp; Haas) 인수에 활용할 복안이 있었음. 이에 따라 다우케미칼이 롬앤하스를 인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다우케미칼은 물론이고 롬앤하스의 주가가 동반 폭락했음.</p>
<p>국제유가 반등</p> <p>[WTI: \$40.02 (+\$2.31)]</p>	<p>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으로 중동산 원유공급에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로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 영향으로 정유사인 엑슨모빌과 셰브론 등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서부 텍사스산 유가(WTI)는 배럴당 2.31달러(6.13%) 상승한 40.01달러로 마감했음.</p>
<p>지맥(GMAC) 채무조정 지켜보자..자동차주 약세</p>	<p>제너럴모터스(GM)의 금융자회사인 지맥(GMAC)이 지난 주 마감한 채권자들과의 `채무스왑`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란 소식으로 GM 등 자동차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음. 채무스왑 결과가 좋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작용했기 때문임. 자금난에 처해 있는 지맥은 美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부터 은행 전환을 승인받은 상태임.</p>
<p>中 원유 생산량 세계 5위 [페트로차이나]</p>	<p>중국이 올해 1억8900만톤에 달하는 원유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 중국내 최대 원유 생산업체인 페트로차이나가 밝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올해 중국의 원유생산량은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난해의 1억8600만톤에 비해 1.61% 늘어난 것.</p>
<p>중국 "철강·자동차·조선 등 핵심업종 적극 지원"</p>	<p>29일 KOTRA 베이징무역관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제조업체들의 경영난 구제를 위해 철강·자동차·조선 등 핵심산업의 성장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9대산업 진흥계획'(이하 '계획')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올해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 공표할 것으로 알려짐.</p>

제목	주요 내용
일본 "경기부양책 더 이상 고려 안해"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재무상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운용돼야 한다"면서 "현재 수립된 정책을 원만하고 신중하게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힘
英파운드화 급락..1유로당 97.21펜스	영국 파운드화가 내년 영국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급격히 무너지며 1유로당 97펜스 초반까지 급격히 화폐가치가 하락. 이때문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
CD금리 3.9% 초반 '진입' 3.94%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3.9%대 초반에 진입. 29일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91일물 CD금리는 전일보다 1bp(1bp=0.01%p) 내린 3.9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 2005년 11월1일 3.9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한은의 단기 유동성 공급 효과로 당분간 하락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C&중공업 회생보다는 정리에 무게	메리츠화재가 C&중공업긴급자금 지원에 찬성하지 않기로 함에따라 채권단이 회생보다는 정리쪽으로 기우는 모습. C&중공업이 본격적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대출과 보증을 합쳐 총 1조원이 넘는 자금 지원이 필요함. C&중공업은 채권단에 긴급 자금 150억원 외에 시설자금 1450억원과 보증 8억7500만 달러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상태.
경상수지 두달연속 흑자.. 규모는 반토막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두달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흑자규모는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자본수지 항목에서는 여전히 빠져나가는 달러가 압도적이었지만 금융기관의 해외차입금 상황이 대폭 줄어들면서 자본수지 쪽에서의 달러 이탈도 절반으로 줄어듬. 이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출이 그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것.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